

I. 통상현안정보

■ 독일, 생산기지로서 생존 가능한가?

□ 독일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 증가 추세

- 최근 들어 생산기지 해외이전 문제가 독일 경제계와 노조간의 이견으로 잦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고용주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에서 해외 이전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기도 함.
- 불과 몇 달 전에 지멘스사는 IG-Metall노조와 임금협상에서 노조에게 임금조정 없는 근무시간 확대와 크리스마스 및 휴가보조금 폐지를 요구하며, 노조에서 동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헝가리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독일 내에 2천명의 감원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협박을 가했음.
- 동 임금협상은 지멘스사의 승리로 끝났으며, IG-Metall노조는 2년간 임금조정 없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동의해 수년간의 논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주35시간 근무제를 일단 포기해야 했음.
- 이와 같은 사례가 잦아지면서 독일 기업 해외이전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 독일 기업의 사업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독일 商議는 75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해외투자 현황을 조사했는데, 동 조사에 따르면 올해 독일 제조업의 43%가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전년대비 5%가 증가한 것임.

<독일 기업의 해외투자계획 추이>

연 도	1999	2001	2003	2004
해외투자 계획 기업	30%	34%	38%	43%

(자료원 : 독일 상공회의소(DIHK) 설문조사 결과, 99년은 서독기업만 집계)

- 이외에도 기업 컨설팅기관인 Droege & Comp.와 프라운호퍼 생산기술 연구소(Fraunhofer-Institut fuer Produktionstechnologie)가 980개의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제조업의 46%가 향후 3년 내에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 하고 있다고 밝혔음.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34%에 불과했음.
- 해외 투자의 가장 큰 이유는 생산비용 절감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동안 독일 기업들은 고임금, 높은 임금 부대비용, 높은 세율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독일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해 왔음.
- 한편, 세계시장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는 “아젠다 2010”을 통해 대규모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아젠다 2010”의 경제관련 주 내용은 관료주의 완화, 노동시장 완화, 조세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감소,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으로,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나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결국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에 다급한 업체들은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 뮌헨 Ifo 경제연구소는 독일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바자경제’로 연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르렀음. 여기서 바자경제는 생산이 없는 단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처를 뜻하는 것으로 독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임.
- 특히, EU확대 이후 중소기업의 동유럽국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와 같은 우려는 더욱더 심각해졌음.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금까지 법적 불안요소 등으로 해외 투자를 꺼려했었음. 그러나 동유럽국가의 EU가입으로 인해 법적 안전이 보장이 되자, 저임금 및 낮은 세율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에 적합한 동유럽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임.

□ 높은 수출 역동성은 국내 부가가치생산 및 일자리 보장

- 한편, 기업 해외투자 현황을 조사한 독일 상의는 독일 기업 해외투자의 가장 큰 원인이 비용절감이긴 하지만, 신흥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 기업의 해외투자 이유>

년도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기지	판매사무소 및 AS센터
1999	34	29	37
2001	29	27	44
2003	42	26	32
2004	39	24	36

(자료원 : 독일상공회의소(DIHK) 설문조사 결과, 99년은 서독기업만 집계)

- 최근 연방재무부가 발간한 “글로벌화의 일자리창출 효과” (Arbeitsplatzeffekte der Globalisierung) 보고서에서도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은 글로벌화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독일기업의 해외 투자로 피해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음.
-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콘체른의 EU신규가입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국내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독일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은 국내 생산기지를 포기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추가 투자로 인한 신규 생산기지 설립 또는 생산라인의 일부분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임.
- 한편, 독일 연방재무부는 독일의 수출증가 또한 독일에서 부가가치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반증이라고 전했음. 수출증가는 국내 생산량 증가를 뜻하며, 이는 국내 일자리 보장 또는 신규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독일은 생산입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

<1999년 - 2003년 독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수입	증감	수출	증감
1999	444,797	5.0	510,008	4.4
2000	538,311	21.0	597,440	17.1
2001	543,774	0.8	638,268	6.8
2002	518,532	-4.5	651,320	2.0
2003*	531,970	2.6	661,613	1.6

(자료원: 연방통계청, 2003년은 예상액)

□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 및 정부 혁신 정책이 산업구조 재편

- 독일의 생산입지로서의 매력이 사라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독일의 앞서가는 혁신 기술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가족기업으로 설립되어 수 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족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으로, 혁신 기술 및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남들이 불평하는 독일내의 사업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시장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임.
- 최근 독일 유력 일간지인 FAZ지는 혁신기술로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독일 성공 기업들을 시리즈로 소개했음. 대표적인 예로는 니더작센주에 Otto Bock Healthcare GmbH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조종이 가능한 의족(義足) 기술로 세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임. 동 회사의 의족가격은 2만 유로로 일반 기계식 의족과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해 모든 상황에 적응이 가능하여 미국에서만 약 8천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음.
- 독일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지원정책도 독일의 미래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혁신기술만이 독일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생산기지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시행중인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이노’(PRO INNO: Programm Innovationskompetenz mittelstaendischer Unternehmen)를 위시하여 산업별 혹은 지역별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INNO Regio 및 Bio Regio 등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독일 중소기업연구소 (IFM)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99.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하기에는 재정적인 무리가 있음. 혁신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이노’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협력체를 이루어 연구소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또한 독일의 기업들이 미래형 산업구조로 변화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문의처 : 베를린무역관 김한일 heinlich@kotra.or.kr)